

안녕하세요.

인수인계서는 크게 시간순으로 공연 전 팀장으로서 할 일, 공연 준비 기간동안 할 일, 공연 당일과 후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공연 전

- 1) 인원 모집: 소극장 특성상 분장실이 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하고, 의사결정이나 일정 조율을 위해서도 팀원 1명당 캐스트 2명정도 담당하는 인원수가 가장 효율적인 듯합니다.

특히 공연 직전 주간에는 시연회, 리허설이 있고, 그 전에 의상 구하기와 소품 구매와 제작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공연 준비 후반부에는 정기회의날 말고도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인원이 많다면 후반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팀을 꾸리길 추천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번 공연은 의소분팀이 많은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아예 의상 담당/소품 담당/분장 담당을 나누어 각자 할 일을 분배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 2) 예산안: 첫 키스탑 회의에서 예산안을 정합니다. 보통은 5만원을 받고 여유롭게 사용했으나 이번 공연은 의상도 소품도 공연진과 동방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게 많아서..

- 동묘 8000
- 종이 2000
- 안경 9900
- 판사봉 10000
- 법복 62500 + 5500(택배비)
- 파일 7500
- 인쇄 7800+600+250+300
- 파일, 종이 4100
- 픽서 24500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초기 예산 10만원+감동후원금)

- 3) 키스탑 회의: 각 팀 팀장들이 모여 매주 진행상황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매주 토요일 3~4시 울전에서 진행했습니다.

- 대동제: 이번 공연에선 키스탑 회의에 팀원 1명씩을 꼭 데려오도록 해서 전체 공연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륜 팀원의 경우 울전까지 오는 시간으로 일정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대공연 준비 초반에 매주 대동인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공연 준비

- 1) 대본분석: 공연 특방에 최종 대본이 올라오면, 첫 회의 전까지 대본을 읽고 분석합니다. 팀원들도 회의 전까지 대본을 읽고 분석해오도록 안내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캐릭터 성격, , 소품을 대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환복 타이밍(한 캐릭터가 여러 배역을 맡는다면)

캐릭터 분석과 소품 분석:

캐릭터 분석: 각자 대본을 읽고 떠올랐던 캐릭터의 이미지와, 어울릴 것 같은 의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밝은 성격의 캐릭터라면 베이지, 노란색 계열의 옷/어린 캐릭터라면 양갈래 머리와 블러셔 등...

보도지침에서는: 검사인 돈결과 피고인 주혁&정배, 변호인 승희가 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측은 주로 웜톤계열로 코디하고 돈결은 블랙&화이트, 푸른색 넥타이로 코디했습니다. 특히 승희는 가난하다는 설정, 돈결은 대대로 부자라는 설정이 있어 셔츠 색에서 베이지와 새하얀 색으로 차이를 주었습니다.

소품 분석: 각자 체크해온 걸 비교하며 1차 소품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어떤 소품이 대본 몇 장 몇 페이지에서 등장하는지 엑셀로 정리하고, 의소분팀끼리 레퍼런스 사진을 찾아둡니다.

-의자나 벤치 등 대도구는 무대 팀 담당이므로 소도구만 체크하면 됩니다. (술잔, 가방 등

2) 의상

-보통의 경우

회의에서 의소분팀 아이디어 픽스하고 레퍼런스 사진 찾기-> 연출진과 최종 픽스-> 캐스트에게 공지-> 캐스트 옷 사이즈, 피부톤, 신발사이즈 조사&가지고 올 수 있는 옷 조사-> 없다면 공연진 조사->피팅->수정->피팅&수정->최종 픽스로 이루어집니다.

-보도지침의 경우

픽스된 의상 중 정장류가 많아 클래식한 구두나 셔츠를 나중에도 입으려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구해야 하고 어떤 옷은 캐스트가 직접 구매할 것인지도 자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의상 픽스

연출과 캐스트가 연습하면서 의상을 픽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간중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원작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작 설정이 있는 경우 차용할 수 있으므로 연출에게 자주 물어봅시다. (예) 보도지침의 경우, 법정-동아리를 오갈 때 환복하지 않고 조명으로 구분하고, 배역이 많은 남자 여자는 올블랙으로 통일 등

- 연습 참관

대본으로 상상했던 캐릭터의 이미지와, 캐스트가 해석하고 소화하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주 참관하며 의상과 분장, 헤어 아이디어를 보완해야 합니다.

참관시 해야할 일

-피팅: 의상이 정해지고, 캐스트나 공연진에게 옷을 받았다면 실제로 입게 해보고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장, 헤어 아이디어 픽스: (예) 머리를 넘길지, 묶을지, 블러셔를 넣을지 말지

등

-특수한 옷: 보도지침은 8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법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는 작품이라 80년대 자켓이나 판사복같이 공연진의 옷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시장과 코스프레 의복대여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1)동묘 구제시장 옷무덤

-가격: 1벌에 2,000~5,000원

-옷무덤 낮 12시 오픈

- 팀원들 시간을 맞춰야 해서 평일에 갔는데, 시간이 된다면 주말에 연출진과 같이 쇼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상 옷 사진을 찍고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분위기가 아닌 데다가 연출진도 캐스트 연습 지도하는 사이사이에 의상을 컨펌하면 집중하기 어려우니까요.

(2)땡샵 (<https://ddaengshop.com/>)

-판사복, 검사복 6일 대여 각 30,000원+배송비

-구매 과정 보증금 환불 계좌를 입력하고 옷 대여비+보증금 입금 -> 옷 주문

-> 공연 마지막날 박스에 싸서 편의점 택배로 보내기 -> 보증금 환불

-막공날 옷 사이즈에 맞추어 넉넉한 박스를 미리 챙겨가길 추천합니다. 다급하게 공연 때 마신 음료수 박스들에 담아 보냈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2개를 이어 붙여 보냈습니다.

3) 소품

대본 분석 후, 연출진이 소품 리스트를 컨펌해주고 나면 소품을 구해야 합니다.

(1) 소품 준비 시 주의사항

- 조명에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반짝이가 들어간 소품이나 유광 재질의 소품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반지, 시계, 안경 등)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무광 테이프로 코

팅해주어야 합니다.

-리스트 컨펌 후 레퍼런스 사진과 함께 어떤 색, 모양, 사이즈인지 언급되지 않았다면 질문해가며 소품을 준비합니다.

- 소품을 구매하고 나면 영수증 사진을 찍고, 실물 영수증도 잘 보관해 두었다가 기획팀/부연출에게 전달합니다!

(2) 소품 구하기 1 - 동방

- 역사가 깊은 동아리답게 동방을 구석구석 찾아보면 예전 공연에서 썼던 좋은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을 뒤져 쓸만한 소품들을 찾고 구석에 모아둡니다.

(3) 소품 구하기 2 - 공연진에게 빌리기

- 만약 동방에서 소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공연진에게 빌릴 수 있는 소품이 있는지 레퍼런스 사진과 함께 톡방에 질문합니다. 물어봤는데도 없다면 구매합니다. 기타 특이한 소품(구매 불가능한 것)은 제작합니다.

(4) 소품 구매처

-다이소에 물건이 있다면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다이소에 원하는 물건이 없다면 혜화동 로터리쪽에 있는 '모닝글로리 대학로점'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갈색 정부화일같이 공연에 쓸만한 소품을 많이 판매합니다.

-팀원이 많다면 다같이 다이소에 갔다가 모닝글로리에 갔다가 하기보다는 조를 나누어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근마켓

보도지침에서 필요했던 판사봉은 판사봉 다이소나 모닝글로리, 골동품 시장에서도 팔지 않아 당근마켓을 이용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가를 주고 구매하면, 의소분 총예산보다도 비싼 가격) 만약 구해야 하는 소품이 있는데 예산안에 맞추어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근마켓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공연진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본인의 동네에 찾는 소품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구매
- 실제로 저도 광고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판사봉 거래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ㅌㅌ

(5) 소품 제작

월간 독백 표지나 다른 책 표지 커버들은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이즈: A3/B4(정문앞 프린트카페에서 출력가능)

-실제 '월간 말'의 표지를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홈페이지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127>) 에서 다운로드하여 포토샵으로 편집했습니다.

4) 분장

-준비물: 24~25호 파운데이션(남자용), 23호(밝은 피부 남자, 여자) 21호(여자, 하얀 피부 남자), 헤어 픽서, 메이크업 픽서, 쉐딩브러쉬 최소 3개, 쉐딩

예산이 부족하다면 23호 이하는 캐스트나 의소분팀 파데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은 있는 파운데이션에 어두운 색의 컨실러를 사서 섞어 쓰시면 됩니다.

-동방에 있는 의소분박스에서 남아있는 화장품들 확인하시고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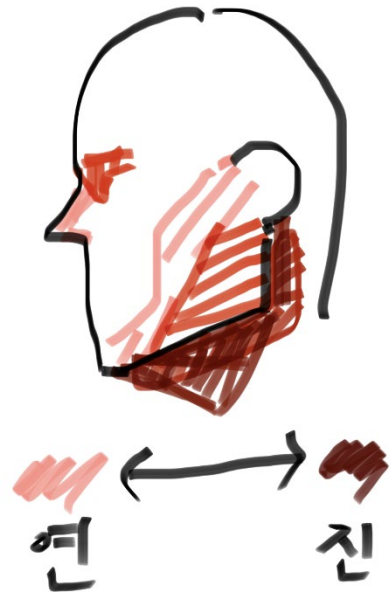


-쉐딩의 경우 기존 쉐딩은 연해서 조명에 의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브라운계열 쉐도우를 이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본 공연에서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아이샤도우 팔레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메이크업 픽서는 매 대공연때마다 한 통씩 쓰는 것 같으니, 하나 새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분장 팁

- 1)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처럼 쉐딩하면서 색만 진하게 올리면 목보다 얼굴이 더 진해지므로 목까지 쉐딩해야 합니다.
- 2) 미간과 코 옆만 칠하면 멀리서 코만 보여서 눈썹 아래도 살짝 음영을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T존)
- 3) 다크서클 메이크업의 경우 파란색 계열(하늘색, 남색 등)의 쉐도우를 눈 밑에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3. 공연과 그 이후

1) 시연회

시연회는 공연 약 일주일 전이며, 실제 공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런을 돌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의상,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연 전날

-공연 전날에는 극장에 가서 메이크업 리허설을 합니다. 공연 날 원활한 로테이션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팀원 모두가 참석하여 캐스트 별 메이크업 과정을 익혀 두도록 합니다.

혹시나 피부톤이 똥똥 뜨지는 않는지, 색조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극장 조명 아래에서 쉐딩이 보이려면 어느 강도로 해야 하는지를 미리 봐 두고 공연날에는 신속하게 분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연당일

-의소분 콜타임에 맞추어 공연장에 와서 분장을 하면 됩니다. 보통 10시~11시 사이인데, 연출진의 공지에 따르면 됩니다.

-피부화장+기초화장의 경우 본인 화장이 가능한 캐스트들은 직접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덜 복잡합니다. 다만, 색조화장(쉐도우, 블러셔, 립)은 분장 전 최대한 덜 해오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쉐딩까지 한 후 조명 아래에 서서 연출진이나 다른 공연진에게 쉐딩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픽서를 뿌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서 공연하는 동안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루에 공연이 2회 있다면 오전 공연이 끝나고 식사 후 수정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4) 공연 이후

- 택배로 보내야 하는 대여한 옷이 있다면 반납하고, 뒷풀이를 즐긴 뒤 합평회를 준비합니다!
- 혹시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이 있다면 제출합니다.

미래의 의소분 팀장님 파이팅!